

# 임오화변(壬午禍變) 서사를 통해 드러나는 시대적 징후 고찰

-<비밀의 문>, <붉은 달>, <사도>를 중심으로-

김강원\*

## <차례>

1. 서론
2. 아버지의 부재와 국가의 상실
3. 어머니로의 회귀와 역사적 상상
4. 전제된 희망을 위해 강제되는 희생
5. 결론

## <국문초록>

장기화된 실업문제와 경제위기로 인해 가부장제의 신화는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의 붕괴 이후 세대 간의 갈등문제사 사회문화의 전반에 걸쳐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연장선에서 사도세자와 임오화변의 서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지난 세대가 누린 혜택의 결과로 남은 빚 감당에 허덕이는 젊은이들과 서슬 퍼렇게 대드는 젊은 세대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기성세대 모두에게 '서로 칼을 겨누는 아들과 아버지'라는 역사적 모티프는 강하게 소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갈등이나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되어온 문제로 새삼 임오화변 서사의 소환을 세대나 가부장의 문제에 한정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도세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세 편의 작품 <비밀의 문>, <붉은 달>, <사도>를 대상으로 임오화변의 서사를 통해 드러나는 시대적 징후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작품이 담지하고 의미를 포착해보았는데, 첫째는 남근의 상징인 국가의 붕괴에 대한 불안과 증오의 상징으로서의 사도세자이다. 국가라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들을 불안과 증오의 정신병적 징후를 보이게 된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중되다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세자의 광증과 함께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오화변의 서사는 유의미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부친살해를 통해 성장하는 아들은 상징계의 차원으로 갈 수 있지만 아버지의 상징인 국가의 붕괴로 그것은 불가능해졌다. 아들을 아버지를 극복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채 유아기적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상상의 어머니, 모성에 대한 욕망과 퇴행적 집착의 문제가 기인하는 것이다. 임오화변을 다룬 <비밀의 문>, <붉은 달>, <사도>는 공통적으로 모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성에 대한 상상적 회귀이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안식처로 보이는 모성은 실은 허구의 존재에 대한 집착으로 역사의식의 퇴행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가장 큰 아쉬움은 임오화변 이후에 대한 이야기로 세 작품이 모두 사도세자 이후의 미래와 희망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정조'에 대한 내용으로 결말이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적이든 상징적이든 복합적 의미에서 아버지를 상실한 아들의 위치에서 그려지던 사도세자라는 인물에게 극 후반으로 갈수록 실제적 아버지의 위치가 강조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정조)을 위한 희생으로 연결된다. 사도세자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신이 죽는 것이고,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요 된다. 세 편의 작품은 각각 다양한 시선과 방식으로 사도세자를 비롯한 역사적 인물의 캐릭터를 형상화하고 임오화변의 서사를 전제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임오화변이 또 다른 아들인 정조를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세자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든 강요된 선택이든 간에 결국은 세손을 지켜지고 그는 미래가 된다.

지난해부터 예열된 임오화변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은 그것을 기반으로 다듬어져 작금에 폭발한 만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서사가 아버지의 붕괴라는 신자유주의적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이에 대한 위안으로 어머니에 대한 퇴행적 집착, 모성에 대한 상상과 같이 공동체에 대한 왜곡된 욕망으로 인한 배타적 연대를 지향하는 지점에 대한 우려이다. 혹은 비극적 현실에 대해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와 희망이 강요하는 희생적 태도로 문제를 봉합하고자 하는 것 역시 현재 우리가 임오화변의 서사를 통해 투영하는 그릇된 위안이자 위협의 여지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붉은 달>, <비밀의 문>, <사도>, 사도세자, 역사드라마, 임오화변, TV 드라마

## 1. 서론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리를 두고 다투는 상황'으로 대우되는 장기화된 실업문제와 경제위기로 인해 그동안 공고히 지속되어 온 가부장의 신화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흔들리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지난 세대들이 누린 호황의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자각에서 젊은 세대가 갖는 적대감은 시작되었다.<sup>1)</sup> '아들'<sup>2)</sup> 세대들이 드러내는 노골적인

1) "2030세대는 한국의 미래를 '지속 쇠퇴(continuous decline)'로 인식했다. 전함은 침몰하는 데, 아군(我軍)은 없다. 도움 줄 세력도 없다. 2030세대의 현실인식은 '각자도생 생존 사회', 딱 그것이다.", "요즘 20대는 국가의 테두리가 탄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신동아』, 2015.11.

2) 이 논문에서 '아들'은 성적인 구분의 개념에서의 남성인 자녀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적 구분의 아들과 딸을 모두 포함하는, 부모와 구분되는 의미로 자녀세대를 포괄하

\* 중앙대학교

비판과 반감은 ‘아버지’ 세대들과의 대립구도를 촉발시켰다. 지난 세대가 누린 혜택의 결과로 남은 빚 감당에 허덕이는 젊은이들과 서슬 퍼렇게 대드는 젊은 세대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기성세대 모두에게 ‘서로 칼을 겨누는 아들과 아버지’라는 역사적 모티프는 강하게 소구될 수 있었다.

역사드라마는 지난 이야기이지만 현재를 은유하여 재현할 수 있는 까닭에 선호되는 장르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능력 있는 통치에 대한 대중의 갈망이 ‘정조’라는 인물에 투영되어 그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 유행하였으나 최근 TV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 특히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대립을 모티프로 하는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TV 드라마 분야에서는 <일지매>(2008), <최강칠우>(2008), <돌아온 일지매>(2009), <탐나는도다>(2009) <추노>(2010), <성균관스캔들>(2010), <궁중잔혹사 - 꽃들의 전쟁>(2013), <비밀의 문>(2014), <왕의 얼굴>(2014), <삼총사>(2014), <붉은 달>(2015), <화정>(2015), <밤을 걷는 선비>(2015), 영화에서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역린>(2012), <사도>(2015)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역사드라마들은 영조와 사도세자, 선조와 광해군, 인조와 소현세자와 같이 아버지와 자식의 대립의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sup>3)</sup> 천만관객을 동원한 <암살>(2015)과 같은 영화도 아버지를 죽이는 살부계(殺父契)를 중요한 모티프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작년부터 눈에 띄게 소환되는 역사는 임오화변(壬午禍變)이다. 임오화변이란 1762년 사도세자가 부왕인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사망한 사건을 일컫는다. 임오화변은 그간 역사드라마에서 직간접적으로 자주 등장하여 이미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사실(史實)이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영조나 정조를 다루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 혹은 주요한 계기로 활용되었을 뿐 정작 임오화변의 당사자인 사도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역사드라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2014년과 2015년 들어 사도세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임오화변을 중심사건으로 내세운 역사드라마가 연이어 등장하였는데 TV 역사드라마인 <비밀의 문><sup>4)</sup>, <붉은 달><sup>5)</sup>과 영화 <사도><sup>6)</sup>가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상징과 그 관계가 서사하고 있는 시대의 징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이란 항상 사회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창조되어왔다. 대중의 욕망을 반영하고 또 그것을 승화시켜나가는 것이 문학과 현실세계의 관계이자 가치였기 때문이다. 현실의 카오스를 카이오드적으로 재편하는 것, 그것이 문학이 시대의 길잡이를 해 주거나 혹은 시대의 욕망과 갈등을 드러내줄 수 있는 방식일 것이다.<sup>7)</sup>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참혹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임오화변을 중심에 놓고 그것을 소환하고자 하는 현상이 포착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그’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이 시대의 현실과 그 안에서 결핍된 혹은 욕망하는 ‘그 무엇’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정신분석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분석학의 탄생 당시가 세계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아버지의 위상이 정치, 종교, 가족이라는 전방위적 측면에서 몰락하던 시기임을 상기해 본다면,<sup>8)</sup> 현재 ‘아버지’의 상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몰락이

고 상징하는 ‘아들’로 용어를 포괄함을 밝힌다.

3) 흥미롭게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여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위기가 영항이 미친 2008년 이후 이러한 작품들이 붐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극본 윤선주, 연출 김형식 / SBS / 총 24부작 / 방영 2014.09.22~2014.12.09.

5) 극본 유영석, 연출 배경수 / KBS2 / <드라마 스페셜> 1부작 / 방영 2015.08.07~2015.08.07.

6) 감독 이준익 / 2015년 9월 16일 개봉.

7)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이정임 역, 『철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995, 295면.

8) 필리프 켈리앵, 홍준기 역, 『노아의 외투 - 아버지에 관한 라캉의 세가지 견해』, 한길사, 2000, 44면.

라는 현상에 대해 ‘아버지란 누구인가’라는 대중들이 가지는 수준의 질문 대신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들 또는 딸을 향해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화두로 두는 것이 바로 시대를 보는 정신분석학의 층위이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자면, 지금의 우리 역시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무엇인가’보다는 그러한 갈등이 의미하는 바, 버림받은 ‘아들’이 상징하는 시대의 징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하였듯 사도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세 편의 작품은 TV 드라마 <비밀의 문>, <붉은 달>과 영화 <사도>이다. <비밀의 문>은 24부작의 미니시리즈로 사도세자가 화원(畫員)의 살인사건을 추리하는 내용의 미스터리물이고, <붉은 달>은 사도세자의 광증을 장희빈의 귀신과 연관해 풀어 낸 공포물로 1회분 단막극이다. <사도>는 세 편의 작품 중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로 영조와 사도를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가족서사에 비중을 둔 작품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 작품에서 영조와 사도를 중심으로 한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방식, 그리고 인물간의 관계, 특히 갈등구조의 전개를 통해 드러나는 시대의 징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아버지의 부재와 국가의 상실

영화 <사도>는 "역사를 재조명하고 부자간의 아픈 가족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현대사회의 가족 문제와 그 의미까지 되돌아보게 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청소년 추천영화로 선정되었다.<sup>10)</sup> 감독인 이준익 역시 다

9) 위의 책, 70면.

10) “영등위는 극 부문에 선정된 '사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영조와 사도세자간의 비극적인 8일을 기록한 영화"라며 "역사를 재조명하고 부자간의 아픈 가족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현대사회의 가족 문제와 그 의미까지 되돌아보게 한다"고 했

수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sup>11)</sup> 이처럼 <사도>는 관람객 수를 의미하는 흥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화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모양새이다. 그리고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사도세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도세자를 다루었던 작품인 <비밀의 문>, <붉은 달>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이 세 작품을 비교해 언급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갈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사도세자와 영조의 이야기가 그간 당쟁이라는 정치적 구도 속에서 해석되어온 것에 대한 비틀어보기의 시도일 수도 있겠고, 주로 정조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곁들여 언급되던 사도를 중심에 놓고 보니 그의 아들이자 아버지로서의 자리가 새삼 강조된 탓일 수도 있겠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최근 사도세자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아들의 이야기들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왕에 의해 죽음을 당한 세자’보다는 ‘아버지에 의해 죽음을 당한 아들’이라는 면이 부각되면서 임오화변의 잔혹함과 참담함은 가중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아버지와 아들의 패륜적 살육에 왜 ‘지금’의 대중들은 주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서론에서 전제하였듯 그간 임오화변이나 사도세자를 중심으로 놓았던 역사드라마가 없었던 점을 환기하자면, ‘지금’ 이 시기에 굳이 그 참혹한 사건을 소

다.” 『아시아 경제』, 2015.10.16.

11) “왕과 세자 이야기지만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가 왕이죠. 자식이 세자고요. 평등사회가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고 몰입해서 볼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중략)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영조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정조의 아버지, 불편한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 관객들도 힘들 수 있어요. 저는 그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 각자 안에서 느껴왔던 그 감정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봐요.” 이준익 감독 인터뷰 중에서, 『헤럴드 경제』, 2015.9.22. 기타 다수의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준익 감독은 이것이 보편적인 가족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로 내면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환하여 들여다보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이 단순히 ‘세대갈등’으로 인한 것 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굳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세대갈등이란 항상 존재하여왔던 것이고 그 범주를 좁힌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면 이미 익숙한 스토리인 ‘사도’를 새삼 꺼내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사도>를 비롯한 <비밀의 문>, <붉은 달>은 공통적으로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은유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이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부자의 갈등은 단순히 가부장적 위계의 차원이 아닌 사회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징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란 남근의 상징이다. 그리고 남근이 형상화된 물체로서의 아버지란 국가를 의미한다. 아버지는 아들(자식)을 보호하는 존재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발생한 역사 이래로 국민의 아버지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 국가가 가진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의 역할이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세계가 재편되었던 냉전시대조차도 국가는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단위이자 기준으로 유지될 만큼 그 테두리는 공고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러 국가는 아버지의 자리를 포기하였다. 국가가 가졌던 강력한 패권은 범위도, 형체도 가늠하기 어려운 금융 자본주의라는 괴물에게로 넘어갔다.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국가의 안정망은 해체되었고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개인은 오롯이 개인 그 자체의 단위로 존재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자기관리’로 대표되는 무한경쟁의 사회로 내몰렸다. 주체들은 국민이 아닌 파편화된 개인으로 수탈당하기 시작하였다.<sup>12)</sup> 국가라는 아버지는 부재하게 되었고,

12)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정유리 역,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난장, 2013, 70면. 아이러니하게도 ‘파편화된 개인’이라는 점이 이들을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동질의 속성이 된 것이다.

국가의 권위는 소멸되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잃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불안과 공포감, 그 이면에는 증오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동반되었다. 자식을 포기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는 아버지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도세자의 서사로 이입될 수 있었다.



<사진 1>  
<비밀의 문> 포스터



<사진 2>  
<붉은 달> 포스터



<사진 3>  
<사도> 포스터

포스터란 작품의 기획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미지의 상징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세 편의 작품은 포스터에서 공통된 아버지의 상징을 보여준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숨줄을 압박하거나(사진1) 부재하거나(사진2) 혹은 외면한다(사진3). 결국 세 가지 이미지는 모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 즉 보호받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것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부재하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은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에 국가의 보호막이 부재하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이 자각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였다.

연이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경험하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은 각성하게 된다.<sup>13)</sup> <비밀의 문>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방영되었는데, 이 작품은 사도세자와 그 주변 인물들의 입을 빌어 세월호 이후의 사회상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담 父**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안타까워서 진실을 밝혀보겠다는 게 뭐가 문제야. 우리 지담인 문제 없어. 문제가 있다면 자식 놈 귀한 뜻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이 애비가 문제지. 진실이나 정의 따위는 관심조차 없는 이 험한 세상이 문제게지. 우리 지담인 문제 없어.  
<비밀의 문> 3부 (밑줄은 인용자)

**세자** (전략) '백성을 하늘로 알고 섬겨야 한다' 이런 공허한 문구를 늘어놓겠다는 게 아니야. 적어도 백성의 목숨이 자신의 목숨만큼은 귀해야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정치할 자격이라도 주어지는 게 아니냐고!  
<비밀의 문> 5부 (밑줄은 인용자)

사도세자를 비롯한 인물들의 대사는 '세월호'가 남긴 상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작품의 부제이기도 한 '의궤살인사건'의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백성과 그 죽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들의 모습은 중심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상술되고 있다. 사회적 신분만으

13) 물론 그 이전에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사스 등 유사한 재난 상황들이 있었고, 더 거슬러 가보더라도 금융위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적 위기는 여러 차례 있었고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은 항상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는 국가의 부재, 혹은 국가부처간의 갈등이 유래없이 강하게 표면화되어 그 민낯을 드러내었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대립 또한 첨예하게 부각되었으며 이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로 따지면 미천하기 그지없었으나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자 기둥이었던 아들이 죽은 후 병약한 노모와 꽃다운 여동생은 관비(官婢)로 끌려갔다. 또 다른 아들의 집에서는 정신지체를 가진 형과 늙은 노모, 그리고 연정을 나누는 기생의 사연이 따른다. 이처럼 가족의 죽음 이후의 무너져버린 남은 자들의 일상이 꽤 비중있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記述)은 기존의 드라마의 클리셰에서 벗어난 것이다. 중심인물이 아닌 단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사연을 비중있게 다루며 강조하고자 한 것은 힘없는 백성(국민)들의 억울함과 상처이다.

전반부에 의궤살인사건이 배치되었다면 후반부에는 북벌(北伐) 에피소드가 배치되어있는데, 여기에서도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의 모습은 반복된다. 청국사신들이 조선 수군(水軍)의 청나라 어선 공격을 빌미로 조선의 해서 연안에서 청국의 조업을 전면 허용할 것과 청국어선이 상시 귀향할 수 있는 귀향지를 마련할 것, 그리고 조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것 등을 요구한다. 영조를 비롯한 대신들은 치외법권만 지켜도 성공한 외교라며 각자의 당리(黨利)를 계산하기에 바쁘다. 그런데 청나라와의 외교에서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위정자의 모습은 중국불법어선 나포 중 사망한 해경의 사건을 비롯한 외교문제의 현재형을 연상시킨다. 해서 연안을 비롯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사도세자가 싸워야하는 것은 청국의 사신 뿐만 아니라 노획한 정치인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였다. 이들은 세자가 부르짖는 애민(愛民)을 “단 한 번도 도전받지 않은 권력”을 가진 세자가 “호강에 겨워 요강개는” 철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세자에게 있어 모든 것은 “너 때문”이다. 영조는 “관용도 힘 있는 자가 갖는 것”이라며 항상 세자를 책망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와 지극히 닮아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힘을 가지지 못한 것 역시 개인의 노력 부족이고 자기 관리가 미흡한 것이다. 성공을 통해 개인은 힘을 획득하는 것이다. 청나라 사신의 에피소드에서는 이러한 대사들이 더

욱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세자의 심복인 채재공 조차 세자에게 노론과 손잡을 것을 권유하며 “나쁜 놈들이지만 유능한 놈들”라고 설득한다. 심지어 세자가 주장하는 북벌론 역시 그 논리는 “공격할 수 있다면 방어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여기에서 <비밀의 문>이 순수한 개혁의지를 가진 캐릭터로 사도를 내세워 대항해온 영조의 힘의 논리와 더 이상 변별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다. 나쁜 놈이지만 능력 있는 놈들을 이용하거나, 불쌍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 힘을 길러야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영조와 위정자들이 주장하던 내용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이기도 하다.

다른 이의 감정을 이해하려하지 않는 자폐적 정신 상태는 신자유주의 이후 현대인의 정신병적 징후의 하나이다.<sup>14)</sup> 제 앞가림에 바쁜 현대인들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자폐적 정신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자폐적 정신 상태는 강박과도 연결된다. “강박이란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의례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sup>15)</sup>이다. 사실 영조라는 인물도 핏줄에 대한 강박이 있는 인물이었다. 친한 어머니를 둔 왕자가 뒤늦게 세제(世弟)라는 자리에 앉게 되었으나,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병약한 형의 죽음으로 왕권을 물려받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준 것은 노론이었다. 당파싸움의 방편으로 ‘선택’<sup>16)</sup>된 왕이라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세습된 불안한 왕위에 설상가상으로 형을 독살하였다는 의혹 역시 평생을 따라다녔다. <비밀의 문>이나 <붉은 달>에서 자객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영조, 영조나 사도세자의 얼굴 위로

14)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앞의 책, 178면.

15) 위의 책, 179면.

16) <비밀의 문>에서는 이를 ‘택군(擇君)’으로 표현하며, 영조의 강박적 불안의 원인으로 전제하고 있다.

뿌려지는 피(血)의 이미지로 작품을 시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비밀의 문>이나 <사도>를 통해 그려지는 영조의 병적인 강박과 괴파스러움, 혹은 <붉은 달>이 그리고 있듯 강한 왕권을 위해 아들을 외면하는 영조의 모습은 공통적으로 사도세자가 가진 아버지라는 존재의 불안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불안정한 아버지의 강박을 아들 역시 물려받게 되며,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한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것보다 더 심한 정신병에 지배당하게 되었다.

사도세자의 광증(狂症)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sup>17)</sup> 이러한 질환이 과연 사도세자를 죽일만한 이유였는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경우는 있으나, 사도세자가 정신 질환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인 영조 역시 어느 정도 병적인 신경증을 갖고 있었음은 분명하다.<sup>18)</sup> <비밀의 문>은 그간 탕평(蕩平)의 군주인 영조의 이미지에 가려진 그의 신경증을 그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도 이미 입증된 사도의 광증에 대해서는 강박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개혁군주로서 구태(舊態)에 맞서는 세자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던 까닭에 결과적으로는 ‘사도’라는 인물이 갖는 특수성은 사라지고 당시 역사의 공간에 이식된 새로운 인물이 창조된 것이다.

『한중록』등에 나타난 사도세자의 주요 정신질환은 의대증(衣帶症, 옷

17) 『한중록』을 비롯해 『영조실록』과 같은 실록, 그리고 『헌고기』와 같은 야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내용은 두루 언급되어 있다. 물론 『사도세자의 고백』과 같은 픽션이 인기를 끌면서 세자의 광증이 조작된 내용이라는 주장이 일부 있었으나, 이는 역사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조는 사도의 기록이 담긴 승정원일기의 기록까지 지웠으나, 사도세자가 죽인 궁인이 무려 100여명에 이르렀다고 명기하고 있는 『대전록』의 경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직접 읽고 흠족해하며 본래 제목이었던 ‘천유록’을 ‘대전록’으로 손수 고쳐주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사도세자의 광증과 이로 인한 잔인한 행각은 그 이상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8) 심지어 이러한 영조의 정신적인 질환이 선천적·후천적으로 사도세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주장도 있다. 손태수, 『『한중록』과 『붉은 왕세자빈』에 나타난 문화횡단성 연구-사도세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 심층심리학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1권 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8.

입기를 거부하는 강박증)과 화병 정도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록』이라는 텍스트를 오늘날 서양의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불안 신경증, 공포증, 조울증, 강박증 등의 증상들이 드러난다.<sup>19)</sup> 공교롭게도 이것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정신병의 증상과 닮아있다. 신자유주의의 이면에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스마트한 세상의 속도에 압도된 인간들이 공황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통제되지 않는 정신병적 증상에 시달리는 모습이 존재한다.<sup>20)</sup>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정신증은 현재로 소환되었을 때 더욱 유의미한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비밀의 문>은 외면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붉은 달>은 사도세자의 광증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그의 광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자가 느낀 공포를 아예 공포 장르로 대입하여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실록의 역사를 공포물로 그리고 있는 역사드라마라마가 드물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붉은 달>에서 직접적으로 설정한 공포의 실체는 장희빈의 혼령이지만 본질적으로 사도가 느끼는 공포의 근원은 ‘아버지’이다.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독살한 형 경종과 그의 생모인 장희빈의 거처에서 어린 아들을 키우던 아버지의 폭력적 양육은 사도를 미치게 한다. 소년이라 부르기도 아직은 어린 아이를 귀신의 소굴로 밀어 넣은 자는 다름 아닌 아버지이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들은 귀신들에 의해 밤마다 시달리고 미쳐간다. 광기로 인해 궁인(宮人)들을 살육함은 물론이고 제 아들(정조)를 비롯한 피붙이들

19) 위의 논문, 250면.

20) “우리의 정신이 그 형태와 의미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너무 빨리 회전하기 시작할 때 카오스가 존재한다. 그 흐름들이 우리의 역량이 감정적으로 정교화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렬할 때 카오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속도에 압도되어 정신은 공황을 향해 표류하고, 정신적 에너지들의 통제되지 않는 전복은 우울한 불활성 depressive disactivation의 전체[전 단계]로 표류한다.”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서창현 역, 『노동하는 영혼 - 소외에서 자율로』, 갈무리, 2012. 173면.

에게 향해 칼을 겨누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만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했던 아버지는 오히려 그 죄를 물어 아들을 죽인다. 사도를 뒤주에 가두기 위해 영조는 갑옷을 입고 활을 맨 무장을 하고 나섰다. 아들을 죽이러 나서는 모습이 사냥을 나가는 모습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사진 4>



<사진 5>

<사진 4>는 아들을 죽이러 나가는 길에 영조가 조상의 사당에 갑옷을 입고 앉아 있는 장면이다. 그간 사도의 패륜적 악행에 대해 고하는 사도의 생모 영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영조는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없이 조상의 위패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카메라 역시 그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잡을 뿐 정면으로 그를 담지는 않는다. 영빈 역시 시선은 그녀의 정면에 고정시키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카메라는 그녀의 정면에서 포착하는 앵글을 삽입함으로써 시청자에게는 영조가 아닌 영빈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붉은 달>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불통(不通)의 존재이다. 영조와 영빈이 한 공간에 있으나 시선의 외면으로 소통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영조는 계속 단절된 인물로 등장한다. 작중 인물 중 누구와도 소통이나 교감이 없이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왕’이라는 강압적인 위치로 박제되어 있

는 것이다. 아버지가 무서워, 그의 눈에 들어 살아보고자 영조가 총애하는 손자이자 자신의 아들인 어린 정조의 작은 모자(휘향)를 억지로 엮어 쓰고 나타난 사도(<사진 5>)에게 영조는 “미친놈”이라는 한마디로 일갈한다.

아버지가 입고 있는 갑옷과 무기는 아들을 지키는 데 사용된 적이 없다. 그것은 그 자신 스스로를 위해 사용되어 왔고, 중국에는 아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을 뿐이다. 강인한 아버지였지만 나를 위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결국 강한 아버지는 허상이었을 뿐, 부재한 존재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미쳐버린다. 이것이 사도세자의 광증을 <붉은 달>이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영화 <사도>는 사도세자가 느낀 불안과 두려움 이면에 동반 되었던 증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사도>에서의 사도세자는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관을 짜 들어가 누워있었다. 자신을 외면하는 아버지에게 이미 죽은 아들 취급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반항이자 항거인데, 이는 일종의 정신적 자해(自害)이다. 처음에는 이처럼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스스로를 해치는 방법으로 표출되지만, 이내 그 같은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겨누게 된다. 자신이 만든 무덤 안 관(棺) 속에서 벌떡 일어난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선봉에 서서 무장한 수하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궁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역수같이 내리는 폭우 속을 헤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가는 세자의 모습이 영상을 채우는 동안 청각적 이미지는 옥추경의 강렬함이 압도하고 있다. 옥추경이란 경객(經客)이 악귀를 쫓을 때 읽는 경문이다.<sup>21)</sup> 사도가 원래 옥추경을 읊어대며 쫓고자 했던 악귀는 자신의 내부에 자리 잡은 광증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길에

21) "조상경이라고 조상한테 외우는 염불이고, 옥추경이라고 실제 있는 것들입니다. 긴장감을 조성해주죠. 사도의 누적된 분노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음악이었어요. 그 음악들은 작곡한게 아니라 천년이 넘는 음악들입니다. 영화를 보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젊은 관객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겠고요." 이준익 감독 인터뷰 중에서, 『헤럴드 경제』, 앞의 기사.

압도적으로 깔리는 배경음악으로 그 긴박감을 더함으로써 결국 그 악귀가 아버지 영조라는 것에 대한 세자의 자각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다.

실록에 의하면 사도세자는 무기와 방법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감에 본능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더해지며 ‘왕인 아버지’라는 대상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병기(兵機)에 대한 각별한 애착으로 발현되었던 것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sup>22)</sup> 이처럼 사도세자가 느낀 증오는 그를 이해하는 가장 강렬한 감정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소 약하게 그려진 <비밀의 문>이나 <붉은 달>에 비해 <사도>에서 사도의 감정선이 가장 설득력 있게 그려질 수 있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아들들은 ‘부친 살해(parricide)’를 통해 성장한다.<sup>23)</sup>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세 편의 작품에서 부친 살해의 시도는 좌절되었다.<sup>24)</sup> 부재한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아버지의 상징, 국가)는 사라졌다. 아버지를 넘어선 극복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그러한 성장의 과정 자체가 동시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버지를 죽이고 성장할 기회를 잃은 까닭에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 신자유주의의 질서로 편입되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무한경쟁의 전쟁으로 내몰렸다. 현실의 고단함과

22) 최용기, 『『한중록』에 나타난 갈등구조』, 『건국어문학』 제15권 1호, 건국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239~240면.

23) 이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주 2)에서 첨언하였듯 이 글에서 언급하는 아들들은 성별의 구분으로서의 아들을 넘어 자녀를 의미한다. 아울러 살해 역시 실제 살해가 아닌 상징적 의미의 살해이다.

24) 여기에서 ‘부친 살해’라 일컫는 것은 직접 칼을 들고 부친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행위와 구분되어야 한다. 사도세자가 영조를 향해 실제로 칼을 겨누거나 혹은 모반을 기획하는 작품의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혼돈의 여지가 충분하여 이러한 내용의 구분에 대해 덧붙인다.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의 부친 살해란 실제의 부친을 죽이는 범죄가 아닌 아버지의 상징을 죽이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발현되었다. 무책임한 아버지  
에 의해 버림받은 아들의 원망은 아들을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죽인 아  
버지의 서사로 환유되었고, 이것은 미스터리(<비밀의 문>)나 공포(<붉은  
달>), 혹은 비극(<사도>)이라는 가장 감정적인 방식으로 재현된 것이다.

### 3. 어머니로의 회귀와 역사적 상상

최근의 역사드라마는 더 이상 ‘왜곡’의 여부나 정도를 논하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서사에 있어서는 작가적 상상, 미장센에 있어서는 예술적  
영상을 빌미로 자의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 역사드라  
마들의 경향과 달리 <비밀의 문>, <붉은 달>, <사도>는 영조와 사도세  
자의 캐릭터와 에피소드를 비롯한 일련의 사실(史實)들에 있어 고증에 충  
실하게 근거하고 있다. 그러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하는 내용의 방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영조의 괴팍한 성향, 사도  
세자의 나약하고 예민한 성품,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실록에 근거해 풀어내고 있다. 그러나 반면 여성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유독 사실에 대한 근거가 약화되어 있다.<sup>25)</sup> 우선 실록과 『한중  
록』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에서 여성 인물들은 크  
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은 사도세자를 영조에게 고변하여 임오화변이  
발생하는데 일조한 인물이다. 아내인 혜경궁 홍씨 역시 10살에 혼인한 사  
도세자와의 사이에서 아들 정조를 낳았으나 세자의 아내보다는 세손의

25) 이는 실록의 기록에서 여성의 존재를 찾기 어렵다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임오화변의  
경우 『한중록』이라는 작품이 존재하고, 심지어 저자가 사도세자의 아내인 혜경궁이  
다. 내자의 저서인 만큼 당시 궁 안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핑계가 되기 어렵다.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중시했고 외척세력을 지키는 데 힘을 쏟은 인물이  
다. 임오화변 당시에도 정조를 앞세워 사도세자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조를 데리고 출궁해버린 인물로, 후에 변명처럼 남긴 『한중록』을 통해  
남편 사도세자를 광인(狂人)으로 묘사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 정조가  
즉위한 직후 자신의 외척인 혜경궁 일가를 몰살한 것 역시 이러한 혜경  
궁의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도세자의 친누이인 화완옹주 역시 영조  
의 총애 덕분에 청상과부가 된 후 다시 궁으로 돌아와 살았지만 사도세  
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후에 정조의 정적(政  
敵)이 된다는 점에서 사도세자 일가의 냉혹한 피붙이 중 한 명 일 뿐이다.

그러나 <비밀의 문>, <붉은 달>, <사도>에서는 이러한 인물의 비중  
과 상관없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도를 사랑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 애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는 사실(史實)의 기록과는 거리  
가 있는 것으로 작가의 상상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영조와 사도, 정조의 이야기는 실록의 기록에 충실하게 서사를  
구성하면서 이에 반해 여성들에 관련한 내용들은 왜곡하고 변조한 것일  
까? 이는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상징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영조의 중전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후궁 영빈 이씨의 소생인 사도세자  
가 세자의 자리에 올랐다. 영빈이 아들인 사도 이외에도 5명의 옹주를 낳  
았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세자의 모후라는 지위가 아니더라도 영조  
에게 가장 총애를 받은 후궁이었다. 천한 궁녀출신에 불과하였고, 자신이  
낳은 아들의 폐위와 죽음을 겪었음에도 후궁으로써 그녀의 지위는 흔들  
리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가 죽자 영조는 매우 애통해하면서 후궁 중 최  
고의 예(禮)로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영빈이 임오화변 즈  
음에 이르러 아들인 사도의 패륜적 행각을 영조에게 직접 고한 것은 아  
들이 아닌 남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아들인 사도세자는 출생  
직후 원손으로, 그리고 두 살 때 세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는 중전의 아들이었다. 또 세자교육을 이유로 세자전에 따로 떼어놓고 유모상궁들이 키운 관계로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세자를 양육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까닭에 세자가 성장해서도 두 모자(母子)는 그다지 정이 없는 상태로 지냈다고 한다. 저간의 이유로 그간 임오화변을 다루는 역사드라마에서 『한중록』의 저자인 혜경궁에 비해 영빈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그러나 <붉은 달>과 <사도>에서는 사도세자의 생모로써 영빈이 갖는 모성애를 영조의 부성과 대비하여 유달리 부각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史實)과는 다른 허구이자 상상일 뿐이다.

<사도>에서는 사도의 성장과 죽음에 어머니인 영빈이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도>는 영빈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어머니인 중전, 할머니인 대비, 누이인 화완옹주와 아내 혜경궁이 대부분 함께 등장하고 있고, 그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영조와 사도가 갈등하는 공간과 계속 교차해 보여줌으로써 모성의 공간을 대비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할머니와 어머니들의 품, 그 공간에서는 언제나 영조가 그리고 사도가 옳다. 편협한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아들을 지키고자 어머니들은 항상 걱정하고 고민한다. 그리고 중전과 대비의 죽음을 기점으로 영조와 사도의 갈등은 폭발한다. 그 과정에서 영빈은 실록에 기록된 것처럼 영조에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사도의 패륜을 고하지만, <사도>나 <붉은 달>에서는 이것이 아들인 사도를 살리기 위한 극한의 방책이었다. 결과는 같지만, 그 목적은 역사적 사실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 <사도>에서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아들이 죽게 되자 노모(老母) 영빈은 가슴을 끊어내는 울음으로 “아이고 내 새끼”를 반복한다. 왕가나 정치와는 무관한 새끼를 잃은 어미의 모습, 그 자체로만 묘사되는 것이다.

이러한 캐릭터를 형상화하기 위해서인지 <사도>에서 영빈의 모습은 일반적인 역사드라마에서 후궁을 묘사하는 시각적인 방식과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 거무죽죽한 피부와 주름이 가득한 늙은 얼굴, 어두운 색채 위주의 투박한 의상, 다소 구부정한 태도와 행동은 영조가 가장 사랑한

후궁이었다고 보기 힘들만큼 어둡고 초라하다. 대신 이러한 분장과 연기는 조강지처(중전)의 자리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젊은 후궁(문숙원)에게 밀려나는 늙은 노모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덕분에 정비(正妃)인 중전에게만 치를 수 있는 예(禮)를 혜경궁과 세손 부부에게 강요하는 회갑연 에피소드나 세자가 입버릇처럼 내뱉는 “불쌍한 우리 어머니”라는 대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붉은 달>은 어머니의 존재를 더욱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심지어 임오화변을 ‘어머니와 어머니의 싸움’으로 그리고 있다. 원래 임오화변이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다. 영조, 사도, 그리고 정조로 이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붉은 달>에서 임오화변의 주축인 사도세자와 영조의 모습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 우선 영조는 역할 자체가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는 극의 초반 세자를 장희빈의 혼령이 있는 저승전에 머물게 하는 억압적인 명령을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극 중간에 세자를 압박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갑옷을 입고 아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전부이다. 영조의 심리는 거의 묘사되지 않으며 그는 사도세자에게 가해지는 외적 압박의 대유로만 상징된다. 사도세자 역시 극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지극히 객체화되어 있다.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저승전에 놓인 이후부터 세자는 정신을 놓은 상태로 묘사된다. 귀신이 두려워 울부짖는 어린 아이에서 귀신에 홀려 나인과 내시들을 죽이는 광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사도세자의 내적 갈등과 내면의 변화 과정의 서사를 생략한 채 광기의 발단과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사도는 ‘광인’으로서의 단선적 캐릭터를 갖게 된다. 이러한 평면적이고 박제된 캐릭터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극에서 입체적인 역할을 부여받는 것은 어머니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 그 이면에 놓인 주체는 어머니가 된다. <붉은 달>에서는 경종의 어머니인 장희빈의 혼령과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라는 두 명의 어머니가 대립하고 있다. 사도세자가 자란 ‘저승전’은 장희빈과 경종의 처소였다. 그리고 그 곳에는 실제 장희빈의 혼령이 있었고, 영조가 경종을 독살한 것 역시 사실인 것으로 전제하며 극은 시작된다. 자신의 무고함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영조는 자신의 아들을 장희빈의 처소에서 묵게 하는 정치적인 쇼를 하지만, 그로 인해 장희빈의 복수가 실현될 수 있었다. <붉은 달>에서는 그간 숙종과 인현왕후의 관계에서 요부로 묘사되던 장희빈의 전형적 이미지를 생략한 채 경종의 어머니로서 위치하는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어 아들을 죽인 자의 아들을 향한 장희빈의 복수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영조는 형을 죽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제 손으로 아들을 귀신에게 내어준 자일뿐이다. 뒤늦게나마 그 귀신의 존재를 알고 아들을 지키고자 그에게 맞서는 것은 어머니 영빈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한 장희빈, 그리고 아들에게 내린 저주를 막고자 싸운 영빈은 어머니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엔딩은 사도세자의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진다. 뒤주에 갇히는 세자의 장면 뒤에 이어지는 장면은 영빈은 기름통을 들고 장희빈의 혼령이 있는 세자의 처소 지하로 가 귀신과 마주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것은 영빈이 사도세자 사후까지 천수를 누렸다는 사실(史實)에 어긋하지만, 그러한 왜곡을 통해 가장 극적인 어머니의 희생을 형상화하는 극적 엔딩을 완성할 수 있었다.



<사진 6> <붉은 달> 엔딩썸

**영빈** 제 시아버님께옵서 희빈께 사약을 내리시었고 제 남편인 상감께옵서 희빈의 아드님 경종대왕을 독살하였습니다. (중략) 헌데 말입니다. 저는 희빈 때문에 제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원한이 더 클 것 같습니까? 희빈일까요, 저일까요? 세손에게는 손대지 마십시오. (중략) 아들은 죽이는 어미입니다. 손자를 위해서 뭐든 못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지아버, 아들과 손자에 이르는 남성들의 전쟁을 마무리 한 것은 여자들이었다. 아들을 잃은 어미와 역시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싸움에서는 지켜야할 또 다른 아들(손자)을 가진 어미가 승리한다. 손자를 지킨 어미이기에 아들을 죽인 죄는 지워진다. ‘관(棺)’으로 상징되는 장희빈의 저주를 불태우고 의연하게 서있는 영빈의 뒷모습을 스틸로 잡은 컷이 <붉은 달>의 엔딩이다.(사진 6) 이는 아버지가 버린 아들을 어미가 지킨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것이 <붉은 달>이 보여주는 임오화변에 대한 시각이자 사실(史實)과는 무관한 작가의 상상의 정점이기도 하다.

‘영빈’에 대한 상상을 통해 그간 임오화변의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어머니의 서사를 보여주는 <사도>나 <붉은 달>에 비해 <비밀의 문>은 영빈을 비롯한 어머니나 할머니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이 다른 인물을 통해 재현된다. 사도세자의 유모상궁과 아내인 혜경궁이라는 모두 강한 여인들이 <붉은 달>이나 <사도>에서 영빈을 비롯한 여성 캐릭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조의 선위과동이 시작되던 당시 영문도 모르는 다섯 살의 사도세자를 이끌고 석고대죄를 시키며 그 뒤를 지킨 것도, 그 이후 계속되는 사도의 아픔과 꿈을 묵묵히 지켜주는 존재로 작품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유모상궁의 모습은 어머니의 닮이 아니다. 혜경궁과 대립하는 모습조차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과 유사하게 그려진다. 아울러 혜경궁 역시 다른 작품과는 달리 사도세자를 사랑하고 그를 지키고자 애쓰는 인물로 등장한

다. <붉은 달>이나 <사도>의 혜경궁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남편인 사도에 비해 아들인 정조였던 것에 비해 <비밀의 문>의 혜경궁은 정조의 아버지이나 지어비인 사도를 지키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애쓰며 정조를 사랑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유모상궁과 혜경궁의 모성적 사랑이 일관되게 그려진다는 점에서 결국은 <붉은 달>이나 <사도>에서의 모성의 상상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세 편의 작품들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어머니의 존재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상상적 모성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욕망으로 볼 수 있다. 버려진 아들을 지켜줄 존재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상상은 그토록 강렬하게 서사를 지배하고 있다. 흔히 ‘아버지’의 상징이 ‘국가’라면 이에 대비해 ‘어머니’의 상징은 ‘민족’이라고 구분하곤 한다. 어머니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본질로 상상적 개념이다. 그런데 남근이라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체되어 버린다면, 그 주체는 상실된 아버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을 찾게 되고,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된다. 마찬가지로 상징인 국가가 와해되었을 때, 그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어머니에 대해 의지하게 만든다. 이것은 사도세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극 중에서 아버지를 잃은 사도세자가 기대는 것은 혹은 사도세자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였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어머니를 포기하면서 상상적 남근은 상징적인 대상으로 대체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거세 콤플렉스는 극복되고 욕망을 우회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sup>26)</sup>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를 극복할 하나의 동력이 된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극복하여 상징적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어머니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오화변을 다루고 있

는 세 작품에서 어머니는 일그러져있다. 어머니의 자리는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한 아들의 피난처가 된다, 그러나 그 피난처라는 것도 매우 위태롭기 그지없어 안정감을 주지는 못하였고, 결국 다른 아들(정조)를 지키기 위해 ‘나’는 버려진다. 이렇듯 ‘어머니’라는 위치가 갖는 긍정적 힘을 상실한 탓에 아들은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라깅식으로 보자면 민족이란 상상계의 차원이고, 국가란 상징계의 차원이다. 본래 민족은 상상적인데, 민족의 기원은 인간이 지닌 언어의 숙명적 다양성에 자본주의와 인쇄술이 수렴된 것이 ‘국가(nation)’<sup>27)</sup>를 준비하는 상상의 공동체, 그것의 시작이 민족이었다.<sup>28)</sup> 즉,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은 국가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상상적 단계에 있다가 사회체계에 들어서면서 상징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시민이자 국민으로서의 주체의 성장을 의미한다. 상징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징계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주체가 편입될 상징계를 무너뜨린 신자유주의 체제의 속성인 극한의 경쟁은 개인을 내몰고 침탈한다. 상징계의 부재로 인해 몰아닥친 위기에서 불안한 개인이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회귀이다. 향수로 남겨둬야 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집착이 되는 것이다.<sup>29)</sup> 민족(어머니)이란 상징적 허구의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호소는 역사의식의 퇴행으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불확실한 속성은

27) 『상상의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상상적 차원의 민족과 구분하여 “근대 민족(n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본문 내용상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국가”라고 표기한다.

28) 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65~76면.

29) 흥미롭게도 자본주의의 상징적 국가이자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금융위기 이후, 민족적 요소가 대두되고 있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가장 희박했기에 신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이 가장 잘 어울렸던 미국에서 경제적 우위의 상실에 대한 대안을 민족에서 찾고자 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 최우선에 둔 것으로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퇴행적 욕망의 방편이다. 제라르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김덕민 역, 『신자유주의의 위기』, 후마니타스, 2015, 472~449면.

26) 류양-다비드 나지오, 표원경 역, 『정신분석학의 7가지 개념』, 백의, 2002, 44~46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민족과 같은 공동체적 의미의 ‘우리’라는 것은 거짓된 미사여구이자 위험한 대명사이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이 혼란과 위치 상실에 대한 방어 기제로 사용되기 마련인데,<sup>30)</sup>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동체에 대한 방어적 태도는 공격적 태도와 동일한 의미를 뜻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타와 거부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은 유지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위험 역시 커진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정신병적인 증상으로도 연결된다. 상상의 단계로부터 상상의 단계로 이행해 가지 못하고 상상단계에 머물러 있으려 하거나 그곳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정신질환이기 때문이다. 신경증이 상징단계에서 상상단계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라면, 정신병은 상상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 하는 시도이다.<sup>31)</sup> 신자유주의 국가관의 문제는 이처럼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발전해나가는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계에 집착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동일시는 회고적이고 퇴행적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금융자본주의란 탈영토적이다. 본질적으로 그 계급 역시 탈영토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연스레 붕괴된 것이다. 연대란 사람의 관계이지만, 영토적·물리적 관계에 기반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연대는 불가능해졌다.<sup>32)</sup> 연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파편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파편화된 개인의 불안은 심화된다. 프랑코 베라르리가 신자유주의에서 촉발된 불안정함이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넘어 심리적 영역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시피,<sup>33)</sup> 파편화된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망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대가

30) 리처드 세넷, 조용 역,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201면.

31) 김종주, 『라깅 정신분석과 문학평론』, 하나의학사, 1996, 26면.

32)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앞의 책, 240~241면.

33) 위의 책, 76면.

망상적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개인이 진정한 주체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발전이 아닌 회귀라는 잘못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회복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4. 전제된 희망을 위해 강제되는 희생

본질적으로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임오화변의 장면으로 모든 이야기가 수렴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세자라는 인물을 다루는 작품에서 응당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장면은 임오화변이라는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임오화변이란 사도세자를 다루는 작품이 갖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임오화변의 서사가 갖는 딜레마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러한 처참한 가족사를 공유한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조와 정조는 공히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시기의 왕이었다는 점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 즉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시기는 다른 왕들에 비하면 평안했던 시대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정조에 대한 평가는 영조에 비해 더 후한 편이다. 선조의 예를 비교해보자면,<sup>34)</sup> 후궁의 농간에 홀려 세자인 아들의 독살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는 사약을 내리고, 자신의 손자들조차 가장 먼 땅인 제주로 귀양을 보내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영조는 비록 아들인 사도세자를 잃긴 했지만 손자인 ‘정조’를 지켜내고 극심한 당쟁의 모함과 위협을 막아내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한 왕이다. 사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딱히 지탄받을 부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영조와 갈등하고 대립하는 사도의 모

34) 일반적으로 소현세자의 독살을 묵인한 것을 인정하는 사관이 인정되고 있고, 이 점에서 선조와 영조라는 두 왕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세자인 친아들을 죽인 군주로 비교되고는 한다.

습을 온전히 구태에 대한 개혁가의 모습으로 묘사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다.

둘째, 사도의 광기와 기행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점이다. 본인의 손으로 최소 100여명 가까이 되는 궁인(宮人) 등을 살해함은 물론이고 그 머리를 참수하여 들고 다녔던 참혹함과 자신의 아들을 낳은 후궁을 직접 죽인 패륜적 악행은 그의 아들인 정조조차 인정한 역사의 기록이다. 대리청정을 처음 맡았을 때의 영특함과 개혁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변해버린 모습의 참혹함을 볼 때, 그가 과연 왕위에 적합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남는다. <비밀의 문>은 이러한 사실(史實)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임오화변 역시 대의(大義)를 위한 세자 스스로의 결단, 즉 자결로 묘사한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광증은 그의 캐릭터와 임오화변이라는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비밀의 문>에서처럼 이를 누락하고자 할 때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해석의 많은 부분이 결여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붉은 달>과 <사도>은 세자의 광증을 적극 인정하고 그 원인이 아버지의 압박이었음을 보여주며, 결국 그 광증이 세자의 죽음을 재촉한 직접적 이유로 설명된다. 그것이 아버지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죄가 대체 무엇이나?”는 <사도>의 대사처럼 죽을만한 죄였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그로 인해 정조와 왕가의 안녕을 지킬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기에 사도의 부성애에 기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강렬한 결말에 대한 부담감이다.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아버지에 의해 죽는 아들이라는 결말의 이미지는 강렬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정사(正史)를 바탕으로 한 역사드라마의 경우 역사 그 자체가 일종의 스포일러가 된다. 그러나 ‘아버지인 왕이 직접 못질한 뒤주에 갇혀 여드레 동안 죽어가는 왕자의 서사는 물론 그 장면이 갖는 이미지의 극적인 힘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스포일러의 정도를 넘어선다. <비밀의 문>은 이러한 스포일러에 압도당한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사도세자라

는 인물을 미래지향적 개혁가로 묘사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다가올 죽음의 이미지가 지배하는 패배적 분위기를 떨치지 못하여 이러한 기획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적극적이고 능동적 캐릭터의 성공이 주는 카타르시스(카타르시스)가 부재한 까닭에 캐릭터는 추진력과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서사는 후반부로 갈수록 힘을 잃으며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 여기에 ‘미스터리 추리극’라는 장르를 표방한 탓에 역사적 결말의 강렬한 잔상은 여러 모로 작품의 전개에서 균열을 유발하였다.

벤야민이 인간에게 질서와 속도와 변화와 진보를 강요하는 자본주의 문명으로부터 각성하여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유토피아적 과거를 재구성하고자 했던 것은 일종의 대안이었다. 그가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는 영웅이나 거시적 사건이 아니었다. 과거가 가장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드러난 인간 실존의 폐물을 통해 일상과 기억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미래가 될 수 있는 과거였다.<sup>35)</sup> 그런 의미에서 임오화변이란 거시적 역사이고, 왕족의 이야기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미래로 환기할만한 여지가 있는 역사이다. 왕과 왕자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탕평의 성군이었지만, 아들을 여드레에 걸쳐 죽이는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가장 참혹한 인간 실존의 민낯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혹한 역사를 소환하고자 하는 현재의 욕구는 이에 대한 각성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그러한 각성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그 방향성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오화변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서 사도세자는 영조와 정조에 비해 아들이자 아버지라는 이중적 위치가 공통적으로 투영된다. 대체로 작품의 초반에는 아들의 위치가 강조되는 반면 죽음에 가까워지며 점차 아버지로의 위치가 강요되는데, 작품의 주제나 장르, 캐릭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35) N.볼츠, 빌렘 반 라이엔, 김득룡 역, 『발터 벤야민 - 예술, 종교, 역사철학』, 서광사, 2000, 108~111면.

고 세 작품 모두에서 사도는 아들과 아버지의 자리로 타자화되어 있다. 죽음의 순간에 <사도>와 <붉은 달>에서의 사도는 과연 내가 당신의 아들이냐며 절규한다. 아버의 사랑을 갈구하며 아들 정조의 모자를 쓰고도 버림받은 사도세자(<붉은 달>)나 내 죄가 무엇이냐며 절규하는 사도세자(<사도>)는 아들로써 저지른 죄를 아버지로써 받아들일 것을 강요당한다.

**사도** 어린 시절 내가 아바마를 위해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았 습니까.  
또다시 저를 어둠 속으로 버리시렵니까.  
대체 당신에게 자식이란 무엇입니까?

<붉은 달>

**사도**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소!  
<사도>

아들 정조의 모자를 억지로 눌러쓴 상태로 힘없이 뒤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붉은 달>), 혹은 뒤주 안에 갇혀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런 그림으로 만든 부채를 보며 오열하는(<사도>) 사도세자의 모습은 그래서 더 안쓰럽게 그려지는 것이다.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의 자리로 성장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아버로부터 온전히 아들이었던 적도 없었던 까닭에 성장하지 못한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임을 강요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선은 그가 죽는 것이었다. 이때의 가장 솔직한 반응은 좌절과 증오, 반항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록의 기록에 상당부분 근거하는 상황의 묘사이기도 하다.

<비밀의 문>에서도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송구할 것 없다. 내가 내 아 들을 지키려 하듯 너는 저 아이, 니 아들을 어찌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하면 된다.”<sup>36)</sup>라며 세자를 설득한다. 그러나 이 설득의 시점

은 뒤주로 향하는 순간이 아니라 극의 중반부 사도가 개혁을 통해 영조 에 맞서고자 하는 서사가 진행되는 도중이었다. 작품은 이러한 부성애의 호소를 긴 시간차를 두고 극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자의 죽음으로 무리 하게 연결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개혁군주의 이상적 모델로 구태 정치의 아버지를 위협하던 사도세자가 중국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패배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모순을 보인다.<sup>37)</sup> 이것은 극작 술의 측면을 넘어 그간 사도세자의 논의를 답습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아쉬운 부분이다. 그 동안 사도라는 인물에 대한 논의는 광증에 미쳐 차마 아버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골칫덩이 왕족의 이미지와 정쟁의 와중 에 무고하게 희생당한 젊은 개혁가의 이미지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비밀의 문>은 이러한 과거의 논점으로 회귀한 것이었다. <사도>와 <붉은 달>과 같이 최근 임오화변을 다루는 작품들의 의의는 사도의 광증을 실록의 기록으로 인정하면서도 왜 그가 마칠 수밖에 없었는가에 초점을 맞 추고자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석의 지점이 포착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대의 지배적 병리는 과거 20세기의 리비도 억압 이 유발한 신경증이 아니라 진취적 도전에 대한 강박이 낡은 정신분열증 이기 때문이다.<sup>38)</sup> 프로이트의 시대의 징후를 설명했던 억압과 욕망의 제 거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로 대체되었다. 하이퍼비전, 즉 가 시성의 과잉으로 대표되는 정보의 과잉으로 인해 신격자극은 과부하에

36) <비밀의 문> 21회.

37) <비밀의 문>에서 전반부에서 영조의 괴팍한 기행과 정치적 무자비함에 대비되어 빛을 발해야 할 사도세자의 총명함은 어리숙함과 미숙함이 동반되는 바람에 동반되 어 그 효과를 반감시켰고,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영조의 부성이 강조됨으로써 사도세자의 개혁의지는 호강에 겨워 투정부리는 아들의 모습으로 퇴화하고 있다. 케릭 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대본에 덧붙여 한석규라는 배우의 연기력으로 인해 화면 과 서사에 대한 장악은 사도세자가 아닌 영조에게로 전도된다. 사도세자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는 여전히 평면적 인물에 머무르고, 오히려 영조가 훨씬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져 아쉬움을 남겼다.

38)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앞의 책, 186면.

걸리고 과잉의 표현들에 대한 병리적 징후는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다.<sup>39)</sup> 사도세자의 병증을 영조의 교육방식과 관련하여 조기교육의 폐단의 예로 언급하는 설명들 역시 조잡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과잉에 대한 병리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것은 좀 더 큰 틀에서, 그리고 세계관의 측면으로 확장하여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세계가 너무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에 수반되는 지나치게 많은 기호들이 해석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의 정신은 더 이상 형태를 구분할 수 없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을 더욱 과도하게 포괄하고 의미의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어떻게든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sup>40)</sup> 사이버 세상, 월드와이드웹(worldwideweb)으로 대표되는 탈영토화는 국가의 상징적 붕괴를 의미하고 지나치게 확장된 경계는 현대인의 불안과 경계에 대한 강박을 야기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계에 대한 복구노력은 미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 주체의 문제와 연관된다. 불안정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연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는 현재를 극복 할 수 있는 주체화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sup>41)</sup> 앞서 언급하였듯 배타적 상상의 공동체를 기획하는 연대가 아니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일 것이다.

작품의 시작과 엔딩은 작가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세 작품의 엔딩을 살펴보는 것은 사도의 죽음 이후, 즉 임오화변 이후의 미래나 임오화변이 갖는 의미에 대한 작가의 강조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이에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 세 편의 작품이 희망하는 사도, 그 이후는 무엇인가를 보고자 한다. <비밀의 문>은 사도세자가 정조에게 유언처럼 남긴 편지의

39) 위의 책, 190~191면.

40) 위의 책, 193면.

41) 위의 책, 242면.

내용이 보이스오버 되며 음성으로 들리는 내용 그대로 정조가 규장각을 짓고 그 안에서 서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를 선언하는 모습을 정면으로 보여주며 엔딩씬을 구성한다. 심지어 정조를 연기하는 배우는 사도세자를 연기했던 배우와 동일하다. 그리고 그 옆에 사도세자의 충신이었던 채재공이 위치함으로써 사도세자의 ‘재생’으로 정조를 보고 있다. <붉은 달>은 전 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사도세자의 처소 지하에서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과 경종의 어머니인 장희빈의 대립이 그려진다. 그리고 영빈이 불을 지르고 귀신과 함께 불타는 것으로 저주를 끊는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아들(손자)을 지킨 것이다. <사도>는 장성한 정조가 혜경궁의 회갑연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마지막에 꽤 긴 카메라 테이크로 이어진다. 정조의 손에는 사도가 정조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린 그림으로 만든 부채가 들려있는데, 그 부채는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을 때 갖고 있던 부채이기도 하다. 모든 결말은 결국 ‘정조’로 모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조를 살린 것은 과연 사도세자였을까? 세 편의 작품은 유독 살아남은 ‘정조’를 강조한다. 사도의 죽음으로 인해 정조가 살아남았다는 주장은 결국 정조를 살리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세자의 모습으로 환언할 수 있고 이것이 작품이 그리는 임오화변의 의미가 된다. 작품의 전반에서 드러내고 있는 불안과 증오, 무력감에 비하면 이것은 매우 안일한 결말이다.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 그로인한 강박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희생으로 전도되는 사도세자의 모습은 정해진 결말에 끼워 맞춘 억지 해석에 불과하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헛된 희망은 참혹한 현실을 버티기 위한 손쉬운 위로일 뿐이다. 정조로 대유되는 다음 세대라는 미래와 희망은 결국 참혹한 현실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의 확인이었다.



## 5. 결론

장기화된 실업문제와 경제위기로 인해 가부장제의 신화는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의 붕괴 이후 세대 간의 갈등문제가 사회문화의 전반에 걸쳐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연장선에서 사도세자와 임오화변의 서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세대갈등이나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되어온 문제로 새삼 임오화변 서사의 소환을 세대나 가부장의 문제에 한정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도세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세 편의 작품 <비밀의 문>, <붉은 달>, <사도>를 대상으로 임오화변의 서사를 통해 드러나는 시대적 징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작품이 담지하고 의미를 포착해 보았는데, 첫째는 남근의 상징인 국가의 붕괴에 대한 불안과 증오의 상징으로서의 사도세자이다. 국가라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들을 불안과 증오의 정신병적 징후를 보이게 된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중되다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세자의 광증과 함께 형상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오화변의 서사는 유의미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부친살해를 통해 성장하는 아들은 상징계의 차원으로 갈 수 있지만 아버지의 상징인 국가의 붕괴로 그것은 불가능해졌다. 아들을 아버지를 극복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채 유아기적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상상의 어머니, 모성에 대한 욕망과 퇴행적 집착의 문제가 기인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임오화변을 다룬 <비밀의 문>, <붉은 달>, <사도>는 공통적으로 모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성에 대한 상상적 회귀이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안식처로 보이는 모성은 실은 허

구의 존재에 대한 집착으로 역사의식의 퇴행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보다 아쉬움은 임오화변 이후에 대한 이야기로 세 작품이 모두 사도세자 이후의 미래와 희망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정조’에 대한 내용으로 결말이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적이든 상징적이든 복합적 의미에서 아버지를 상실한 아들의 위치에서 그려지던 사도세자라는 인물에게 극 후반으로 갈수록 실제적 아버지의 위치가 강조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정조)을 위한 희생으로 연결된다. 사도세자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죽는 것이고,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요된다. 세 편의 작품은 각각 다양한 시선과 방식으로 사도세자를 비롯한 역사적 인물의 캐릭터를 형상화하고 임오화변의 서사를 전제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임오화변이 또 다른 아들인 정조를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자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든 강요된 선택이든 간에 결국은 세손을 지켜지고 그는 미래가 된다.

그간 주변적인 소재로 다루어지던 임오화변의 서사를 중심에 놓은 시도는 <비밀의 문>이었으나 작품의 기획이나 작가의 필력, 캐릭터의 문제 등으로 인해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붉은 달> 역시 호평을 받기는 했으나 1회 분량의 단막극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극적 측면의 미흡함과 파급력의 부족으로 이슈화되지는 못한 채 새로운 시도의 가능성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영화 <사도>는 가족사와 비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잘 활용하였고, 시간을 역순으로 구성함에 따라 임오화변의 역사가 갖는 강렬한 이미지의 스포일러를 오히려 서사의 힘을 더하는 장치로 사용하였다. 이외에 다양한 대중적 취향의 극적 요소까지 더해져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였고, 사도세자와 임오화변의 서사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 관심을 유도하게 되었다. 지난해부터 예열된 임오화변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은 그것을 기반으로 다듬어져 작금에 폭발한 만큼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예상해 본다면, 문제는 이러한 서사가 아버지의 붕괴라는 신자유주의적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이에 대한 위안으로 어머니에 대한

퇴행적 집착, 모성에 대한 상상과 같이 공동체에 대한 왜곡된 욕망으로 인한 배타적 연대를 지향하는 지점에 대한 우려이다. 혹은 비극적 현실에 대해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와 희망이 강요하는 희생적 태도로 문제를 봉합하고자 하는 것 역시 현재 우리가 임오화변의 서사를 통해 투영하는 그릇된 위안이자 위험의 여지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신동아> <아시아 경제> <헤럴드 경제>

#### 2. 단행본

N.볼츠, 빌렘 반 라이엔, 김득룡 역, 『발터 벤야민 - 예술, 종교, 역사철학』, 서광사, 2000.

김종주, 『라캉 정신분석과 문학평론』, 하나의학사, 1996.

리처드 세넷, 조용 역,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2.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울리케 유라이트·미하일 빌트,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체들』, 한울, 2014.

제라르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김택민 역, 『신자유주의의 위기』, 후마니타스, 2015.

쥬앙-다비드 나지오, 표원경 역, 『정신분석학의 7가지 개념』, 백의, 2002.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이정임 역, 『철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995.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서창현 역, 『노동하는 영혼 - 소외에서 자율로』, 갈무리, 2012.

\_\_\_\_\_, 정유리 역,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난장, 2013.

필리프 쥘리앵, 홍준기 역, 『노아의 외투 - 아버지에 관한 라캉의 세 가지 견해』, 한길사, 2000.

#### 3. 논문

손태수, 『『한중록』과 『붉은 왕세자빈』에 나타난 문화황단성 연구-사도세자의 죽음 중심으로 한 심층심리학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1권 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8.

정병설, 『길 잃은 역사 대중화 - 이덕일의 『사도세자의 고백』에 대한 비판』, 『역사비평』, 제94호, 역사비평사, 2011.

최용기, 『한중록』에 나타난 갈등구조』, 『건국어문학』 제15권 1호, 건국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 Abstract

### A Study on Signs of the times through Narrative of Imo Incident

Kim Kangwon

Due to prolonged unemployment problem and the economic crisis, patriarchal myth is being destroyed. Since these patriarchal collapse, it has been intensified throughout socio-cultural issues of the conflict between the generations. At that time, the works dealing with narrative of Crown Prince Sado and Imo Incident are beginning to emerge in general. Historical motifs, “aim the knife each other(son and father), can be strongly appeals to both young people struggling to cope with the remaining debt as a result of past generations enjoyed the benefits and the older generation to the younger generation feeling a sense of crisis. Because generation conflicts and confrontation between father and son are a problem that has been continued with the history of mankind, I saw that the emergence of the narrative of Imo Incident is not enough to explain only the problem of the patriarch and generation.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igns of the times revealed through the narratives of Imo Incident targeting <Secret Door>, <Red Moon>, <Sado> in terms of Crown Prince Sado as a main character.

Key words : Historical Drama, Sado, <Sado>, <Secret Door>, <Red Moon>, TV drama

접수일: 2015년 10월 31일

심사기간: 2015년 11월 8일~11월 21일

게재결정: 2015년 12월 17일